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465 호  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0년 2월 3일<br>(제 286 회) |

**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**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안 자 |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  |
| 제안연월일 | 2010년 1월 28일 |

##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65 |
|----------|-----|

제안연월일 : 2010년 1월 28일

제안자 :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

###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는 2009년 6월 청주국제공항,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 오창 과학산업단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코자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회답이 없는 상황임.
- 이에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충북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도에서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.

### 붙임 : 건의안

##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

존경하는 대통령님,  
국무총리님과 지식경제부장관님,  
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여러분 !

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, 155만 도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번영과 지방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.

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해 6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, 그리고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포함하여 18.66 km<sup>2</sup> 규모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.

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회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3일 국무총리께서 지역 언론인과의 토론회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

이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로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.

물론 몇몇 자치단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고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도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충북은 여타 자치단체와는 전혀 다른 여건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충청북도에서 지정을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은 국제공항과 철도, 고속도로 등 모든 교통망이 완비 되어 있습니다.

또한 오송은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있고, 오송 메디컬·그린시티 조성을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구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

여기에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연계한 MRO 사업 유치,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최고의 솔라 밸리 조성에 대한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원활한 국내외 자본의 유치가 절실하고, 중부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선도지역 육성이 필요한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화룡점정(畫龍點睛)의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.

지방의 발전은 국가번영을 견인하는 첩경입니다. 우리 155만 도민은 변화와 경쟁의 시대 흐름에서 충북의 미래를 일깨워나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.

지역 여건과 도민의 노력, 향후전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다른 지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.

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충북의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조속히 승인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도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.

2010년 2월 3일  
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